

도소이지
뜻하여 피
신대사(新
의옥택이
(재속)

입할때마
오지나안
다하였더
지나도룩
뜻한 그
그후에
것은태하
하고
가라고
한두칭년
압혜천
이오뒤에
고간그인
실일잇스
오지오
아모일
이나드려
다새로보
알풀이나
다어울
하였더

神佛住位... 産川동...
◇「教訓」이란말은 誤解되기
쉬운말이고로次項에 다시該코
지합니다

詩 歌

바다

松都 春 波

부되치는 波詩에

眞珠가 흐를케

종종이친 침바위

외다 안된다

넘실거리는 흰돛에

북소래 나더니

갈매기 날개

夕陽이 버뜨기배

【評曰】「종종이친 침바위외

다안」다」가絶唱이다 「종종

이친」이란말뜻은물라도 조라

소리조흔바다의노래다(春國)

눈사람길

澗川 眞任書

부드러운눈이

나리는밤에

급급흐나막신

탈신다탈신다

肺症

一般世人은
宜告와갓치
그럼으로確
수잇는대로
물식이지만
안이라。病
正直이肺病
오히려排斥
이고肺尖夕
等同病異名
生者가적지
君도如此한
期盡肺病으
的治療만하
次二期三期
하는것은恰
세맞지못하
니다此等不
못함에말미

左의 刻도